



## 미 증시,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 M7 반등에 힘입어 2 거래일 연속 상승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2일(목) 미 증시는 그린란드 관세 철회 속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된 가운데 3분기 GDP 호조(3Q GDP 4.4% vs 종전 4.3%), 블랙록 CEO 래리 핑크의 AI 버블론 일축 발언 등에 힘입어 M7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상승 영향으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다우 +0.63%, S&P500 +0.55%, 나스닥 +0.91%)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견조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 미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이 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3분기 GDP는 수출, 소비 호조에 힘입어 연율 4.4%(vs 종전 최초치 4.3%)로 분기 기준 2년 만에 최대 폭 상승. 애틀란타 연은 GDP 나우 모델 또한(21일 기준)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5.4%로 추산.

한편, 11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2% 상승, 물가 상승률 예상치와 부합한 가운데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Fed Watch 기준,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15.4%로 (vs 한달 전 44.7%, 1주 전 18.5%)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

지정학적 이슈가 완화되며 차주부터 시장은 다시금 빅테크를 필두로 한 기업 실적 발표 연준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판단(한국 시간 기준, 기업 실적 발표 일정 :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1/28, 애플, 아마존 1/29, 알파벳 2/4, 1월 FOMC 1/29). 실제로, 이 날 미 증시에서는 일간 기준 연초 이후 처음으로 M7 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며 차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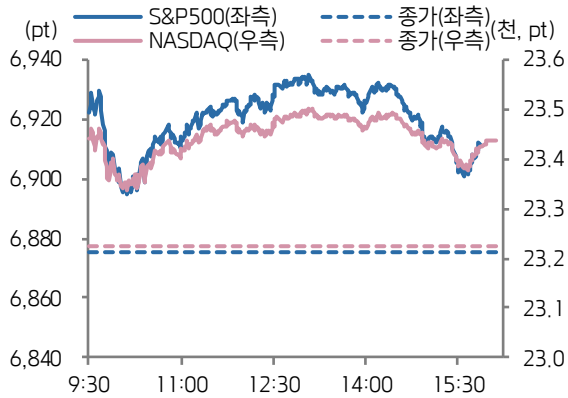
연초 이후 미 증시는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중심으로 자금 로테이션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빅테크는 부진한 주가 흐름 연출(YTD, 러셀 2000 + 9.5% vs M7 기업 평균 -1.6%).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실적 발표를 전후로 빅테크 상승 동력이 재차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 완화와 전일 마이크론(+6.6%) 상승 등 미국 반도체주 급등을 반영하며 장 초반 코스피는 5,000pt선 돌파. 다만, 오후 들어 5,000pt선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된 결과 상승폭 일부 반납 (코스피 +0.87%, 코스닥 +2.00%).

금일 국내 증시는 5,000pt선을 전후로 기존 주도주(반도체, 자동차, 조방원 등) vs 소외주(2차전지, 소비재, 바이오 등) 간 수급 공방전 흐름 나타나며 지수 상승 탄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한편, 본격적인 기업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적주 중심으로 자금 순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에 내러티브 중심으로 상승했던 일부 종목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는 유의해야 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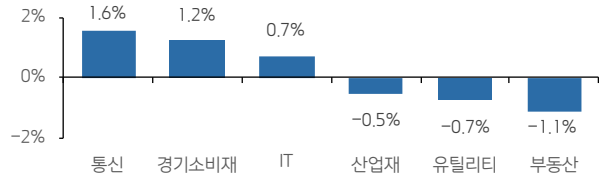
매크로 이벤트 측면에서는 금일 장중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대기하고 있음.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2/8 조기 총선을 발표하며 재정지출 확대 우려가 불거지며 일본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금일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유력하지만 우에다 총재의 통화정책 운용 관련 발언과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에 주목해볼 필요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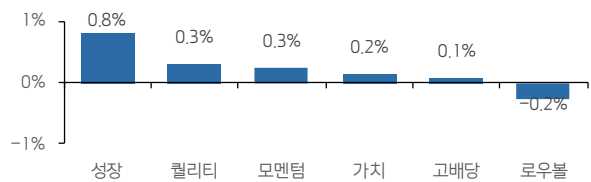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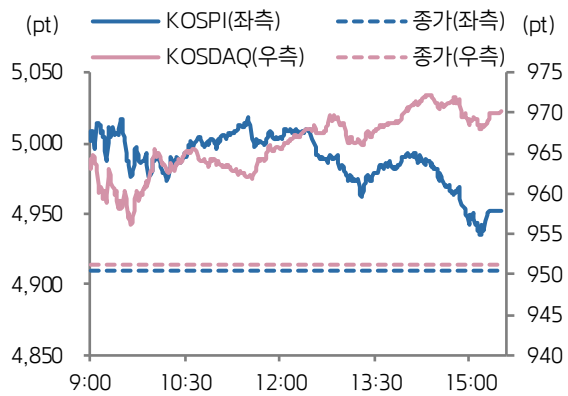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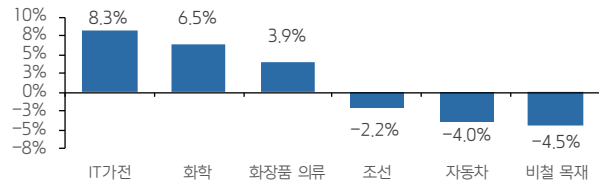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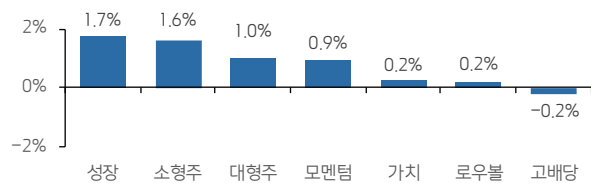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 종목      | 종가     | DTD(%) | YTD(%)  | 종목      | 종가       | DTD(%) | YTD(%)  |
|---------|--------|--------|---------|---------|----------|--------|---------|
| 애플      | 248.35 | +0.28% | -8.65%  | GM      | 81.14    | +0.26% | -0.22%  |
| 마이크로소프트 | 450.87 | +1.52% | -6.77%  | 일라이릴리   | 1,087.38 | +0.82% | +1.18%  |
| 알파벳     | 330.51 | +0.65% | +5.59%  | 월마트     | 117.87   | -1.25% | +5.79%  |
| 메타      | 647.63 | +5.66% | -1.89%  | JP모건    | 303.63   | +0.53% | -5.77%  |
| 아마존     | 234.34 | +1.31% | +1.52%  | 엑손모빌    | 133.64   | +0.02% | +11.05% |
| 테슬라     | 449.36 | +4.15% | -0.08%  | 세브론     | 166.66   | -0.04% | +9.35%  |
| 엔비디아    | 184.73 | +0.77% | -0.95%  | 제너럴일렉트릭 | 117.87   | -1.3%  | +5.8%   |
| 브로드컴    | 325.49 | -1.01% | -5.95%  | 캐터필러    | 648.41   | +0.47% | +13.19% |
| AMD     | 253.73 | +1.57% | +18.48% | 보잉      | 251.41   | +0.54% | +15.79% |
| 마이크론    | 397.58 | +2.18% | +39.3%  | 넥스트에라   | 85.07    | +1.5%  | +6%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 외환시장      |          |         |         |
|-------------|-----------|--------|---------|-----------|----------|---------|---------|
| 지수          | 가격        | DTD(%) | YTD(%)  | 지수        | 가격       | DTD(%)  | YTD(%)  |
| 코스피         | 4,952.53  | +0.87% | +17.52% | USD/KRW   | 1,464.50 | -0.1%   | +1.74%  |
| 코스피200      | 722.30    | +1.03% | +19.2%  | 달러 지수     | 98.32    | -0.44%  | +0%     |
| 코스닥         | 970.35    | +2%    | +4.85%  | EUR/USD   | 1.17     | +0.55%  | +0.03%  |
| 코스닥150      | 1,593.53  | +2.93% | +2.99%  | USD/CNH   | 6.96     | +0.07%  | -0.16%  |
| S&P500      | 6,913.35  | +0.55% | +0.99%  | USD/JPY   | 158.41   | +0.07%  | +1.08%  |
| NASDAQ      | 23,436.02 | +0.91% | +0.83%  | 채권시장      |          |         |         |
| 다우          | 49,384.01 | +0.63% | +2.75%  |           | 가격       | DTD(bp) | YTD(bp) |
| VIX         | 15.69     | -7.16% | +4.95%  | 국고채 3년    | 3.097    | -3.3bp  | +14.6bp |
| 러셀2000      | 2,718.77  | +0.76% | +9.54%  | 국고채 10년   | 3.550    | -4.7bp  | +16.5bp |
| 필라. 반도체     | 8,055.17  | +0.16% | +13.72% | 미국 국채 2년  | 3.612    | +2.8bp  | +13.9bp |
| 다우 운송       | 18,457.17 | +0.24% | +6.34%  | 미국 국채 10년 | 4.249    | +0.6bp  | +8.2bp  |
| 상해종합        | 4,122.58  | +0.14% | +3.87%  | 미국 국채 30년 | 4.844    | -1.8bp  | +0bp    |
| 항생 H        | 9,114.30  | -0.09% | +2.25%  | 독일 국채 10년 | 2.888    | +0.6bp  | +3.3bp  |
| 인도 SENSEX   | 82,307.37 | +0.49% | -3.42%  | 원자재 시장    |          |         |         |
| 유럽, ETFs    |           |        |         |           | 가격       | DTD(%)  | YTD(%)  |
| Eurostoxx50 | 5,956.17  | +1.25% | +2.84%  | WTI       | 59.36    | -2.08%  | +3.74%  |
| MSCI 전세계 지수 | 1,028.65  | +0.62% | +1.38%  | 브렌트유      | 64.06    | -1.81%  | +5.28%  |
| MSCI DM 지수  | 4,469.60  | +0.71% | +0.89%  | 금         | 4,913.40 | +1.57%  | +13.18% |
| MSCI EM 지수  | 1,480.35  | -0.02% | +5.41%  | 은         | 96.37    | +4.03%  | +36.5%  |
| MSCI 한국 ETF | 116.00    | +0.29% | +19.31% | 구리        | 577.90   | +0.19%  | +1.71%  |
| 디지털화폐       |           |        |         | BDI       | 1,803.00 | +4.28%  | -3.94%  |
| 비트코인        | 89,523.64 | -0.73% | +2.14%  | 옥수수       | 424.00   | +0.53%  | -3.69%  |
| 이더리움        | 2,945.95  | -2.76% | -1.07%  | 밀         | 515.75   | +1.58%  | +1.73%  |
|             |           |        |         | 대두        | 1,064.00 | -0.05%  | +1.58%  |
|             |           |        |         | 커피        | 347.70   | +0.06%  | -0.3%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2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